

보도시점 2026. 7. 21.(화) 12:00 (2026. 7. 22.(수) 조간)

폴리텍대학, 20개국 겨룬 세계발명창의올림픽서 기술력 빛내

- 17~18일, 한국폴리텍대학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 공동 개최
- 20여 개국 1,000여명의 발명품과 겨뤘... 창의력·기술력 국제무대 입증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한국대학지식재산협회, 세계지식재산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6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World Invention Creativity Olympic, WICO)'이 지난 17~18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WICO는 전 세계 약 20개국, 1,000여명의 학생·기업인·발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보이는 글로벌 무대다. 심사는 독창성·기술성·실용성·발표력을 기준으로 세계지식재산연맹 및 한국대학지식재산협회의 위촉 전문 심사위원이 진행했으며, 18일 시상식에서 세계대상·금·은·동상 및 정부 기관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은 대상 및 금·은상을 석권하며 한국 직업교육의 기술 역량 및 창의성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상(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발명품은 '열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무전원 배터리 화재 진압 시스템'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전원 차단으로 기존 소화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문제에 착안, 외부 전원 없이 고열에 반응하는 형상기억합금이 자동으로 작동해 배터리를 소화수에 침수시키는 완전 무전원 방식의 자가 작동형 시스템을 고안했다.

광주캠퍼스 대표 김형은 학생은 "배터리 화재 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기존 소화 시스템의 한계를 고민하게 됐고, 폴리텍에서 배운 소재·기계 원리를 접목해 해법을 찾았다"라며 "학교에서 익힌 기술이 실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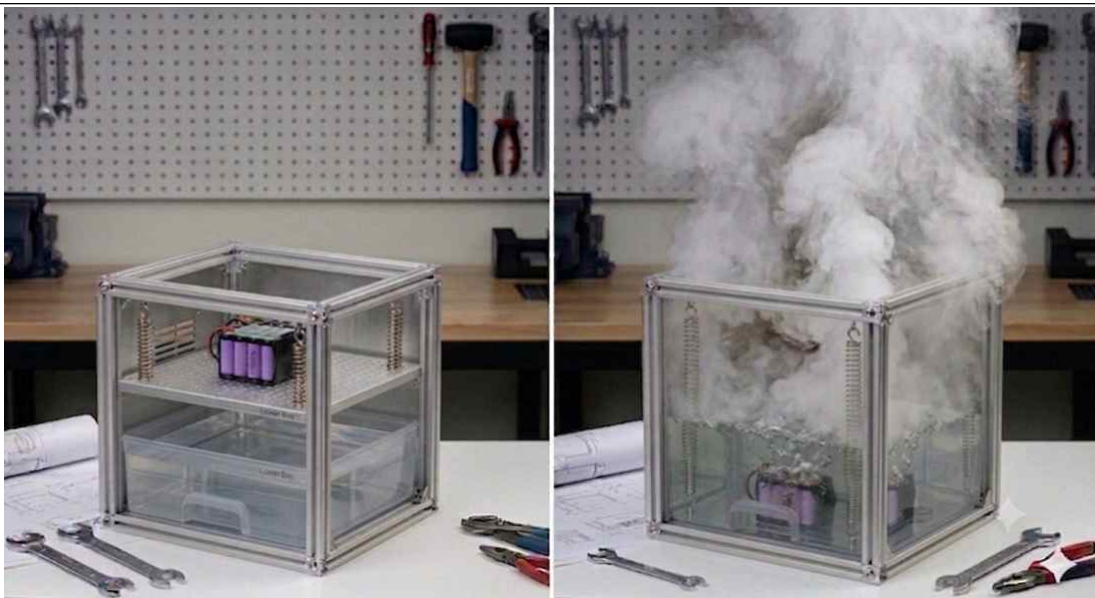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겨루는 이 대회가 발명과 기술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 교류의 장을 넓히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담당 부서	전략기획국 대외협력부	책임자	부 장	강영아 (032-650-6664)
		담당자	교 수	김준영 (032-650-6792)





- ▲ 18일, 한국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 시상식에서 한국 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팀이 대상(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 대상을 수상한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발명품 '열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무전원 배터리 화재 진압 시스템' 모델링 사진
(좌) 정상상태: 열형상기억합금 요소에 의해 배터리가 안전하게 위치
(우) 작동상태: 화재 등 고열 발생 시 열형상기억합금 요소에 의해 자동 하강하여 배터리 냉각과 산소차단



- ▲ 17~18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에 참가한 해외 학생들이 자신의 발명아이디어 전시 준비에 한창인 모습